

경제

영세상인 보호 '유통법' 대형마트 규제하고 쇼핑센터는 풀어줘

"롯데 첨단점 닫고 수완점 열면 무슨 소용?"

광주 수완점 쇼핑센터로 등록… 허점 많아 법개정 취지 어긋나

"롯데 첨단점은 닫고 수완점은 열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한 달에 두 번 문을 닫는 영업 제한이 '대형마트'만 적용이 되고 '쇼핑센터'는 제외되기 때문이다.

15일 광주시 슈퍼마켓 협동조합과 광주 산구청에 따르면 지난 7일 지역경제부는 대규모점포의 범위를 명기한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령에는 '영업시간 제한과의 무휴업의 대상 중에서 대규모점포의 범위를 대형마트로 등록된 것으로 한다'고 명시했다. 현행 법규에는 대규모점포를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점포로 분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통법 제12조의 2의 '영업시간 제한 점포'는 대규모점포의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인 기업형

슈퍼마켓(SSM)으로 한정되게 됐다.

대형마트와 큰 차이가 없는 '쇼핑센터'가 제외된 것이다.

이에 대해 광주시 슈퍼마켓 협동조합, 중소상인 살리기 광주 네트워크 등 영세상인들은 유통법 개정 취지에 어긋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경남 광주시 슈퍼마켓 협동조합 상무는 "유통법 개정 취지는 영세상인을 보호해 상생 발전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자는데 있다"며

"하지만 대형마트는 제한하고 쇼핑센터는 풀어주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항변했다.

실제 광주 산구 지역의 경우 롯데 첨단점은 '대형마트'로, 수완점은 '쇼핑센터'로 등록돼 있으며, 이마트 광산점과 홈플러스 하남점도 대형마트로 분류돼 있다.

입법예고대로 시행령이 발효되고 광주시의회와 자치구의회가 조례를 통해 대형마트의 무휴업일을 지정한다면 롯데 첨단점은 문을 닫아야 하지만 인근에 있는 수완점은 계속

영업을 할 수 있는 허점이 나타나게 된다.

광주시와 광산구도 영업 제한에서 빠진 쇼핑센터를 어떻게 적용할지 골머리를 앓고 있다.

광산구청 관계자는 "입법예고된 시행령이 법 취지에 반하는 점이 있다"며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의회와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 지역에는 대형마트 11곳, 쇼핑센터 1곳, SSM 15곳이 현재 영업 중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실업률 2.9% 광주↓ 전남↑

호남통계청 고용 동향

1월 중 광주·전남 지역 실업률이 2.9%를 기록, 광주는 하락하고 전남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내놓은 '2012년 1월 광주·전남 지역 고용 동향'에 따르면 1월 광주의 실업자는 2만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8.8%(2000명) 감소했고, 실업률은 2.9%로 전년 동기보다 0.3%포인트 하락했다.

광주의 1월 취업자는 66만 4000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1만 7000명(2.6%) 증가했고, 고용률은 55.5%로 0.4%포인트 상승했다.

전남의 1월 실업자는 2만6000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22.4%(5000명) 증가, 실업률은 광주와 같은 2.9%로 0.4%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의 1월 취업자는 85만 9000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3만 7000명(4.5%) 증가했고, 고용률은 59.9%로 2.4%포인트 상승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광주의 1월 취업자는 66만

대학생 전세임대 1000가구

입주자 모집 오늘 마감

LH, 23일 당첨자 발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대학생 전세임대 1000가구의 입주자 모집을 16일 미감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집 대상은 2012년 대학 정시합격자와 편입생이며, 입주 자격과 지원 방안 등은 지난해 말 모집한 9천가구와 같다.

/연합뉴스

부당 단기인하 등 불공정 하도급 손본다

공정위, 직권조사 강화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달부터 부당 단기인하·기술탈취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핫라인을 개통하고 직권조사를 강화한다.

구두 발주 관행과 단기인하 등 하도급 불공정행위가 여전하다는 실태 조사에 따른 조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차금속, 섬유,

음식료 등 제조업종 6만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2010년도 하반기 하도급거래 실태를 지난해 서면으로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고 특별대책에 착수한다고 15일 밝혔다. 실태조사에서 수급 사업자의 83.4%가 원사업자 1곳과 거래하고 매출액의 60% 이상을 의존하는 비율이 95.2%에 달했다. 또 수급사업자의 65.4%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하도급을 주수해 원사업자에

'절대약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하도급법 위반 혐의업체 비율은 원사업자 조사에서 44.9%, 수급사업자 조사에서 60.8%로 나타나 수급사업자가 느끼는 불공정행위의 비율이 더 높았다. 법위반 혐의업체는 원사업자(41.3%)보다 1차 협력사(46.5%), 2차(53.2%), 3차(55.5%) 순으로 1차 이하의 협력사 간 불공정거래가 심했다.

/연합뉴스

갔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코스피지수

2025.32 (+2.68)

코스닥지수

537.86 (+2.50)

금리 (국고채 3년)

3.46% (+0.02)

원·달러 환율

1121.50원 (-2.40)

※수치는 전일 종가 기준



대한불교조계종 문빈정사 남골당 허가번호 : 제2006-1

극락전 남골당

선망부모와 당신의 묘지를
누가 관리하겠습니까?



모든 이들의 영원한 안락과 힐링

가깝고 편안하고 아름다운 곳 !!

무등산 문빈정사 극락전 남골당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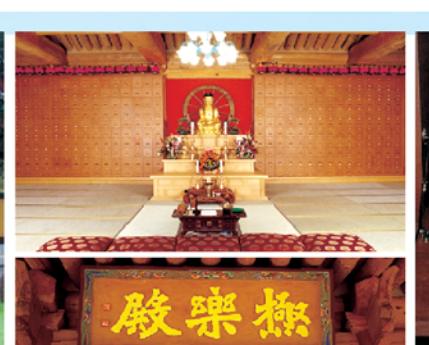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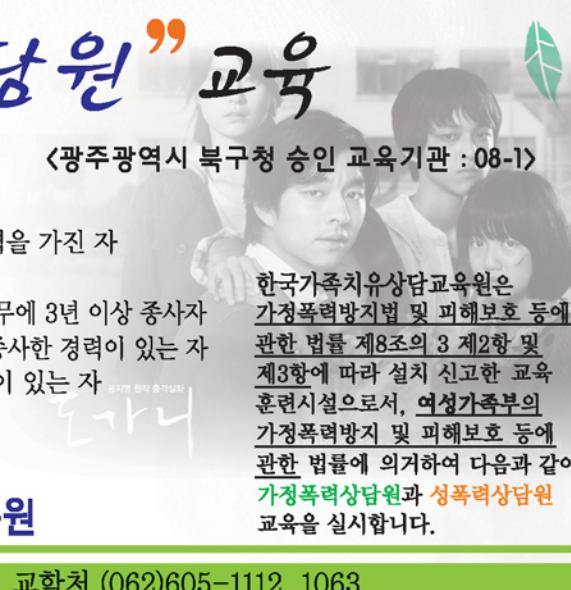
● 후손들의 무관심과 관리소홀 벌초를 하지 않아 황폐화된 묘, 떼가 벗겨진 묘, 동절기장을 거치며 봉괴된 묘, 개인이기주의의 만연과 전통적인 집단의식 및 친족, 이웃간의 상호부조의식 해이로 전국 무연고 묘는 총 도지 2천만기의 40%인 800만기에 달하고 있습니다.

● 비변한 자연재해로 인한 유실과 훼손 여름철 집중 호우와 산사태로 인한 묘지 유실과 훼손은 전국적으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묘지유실은 물론이고 심지어 신사마저도 유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시신에도 해로운 매장 이장을 해본 사람들은 봉분 속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이승보다 더욱 편안해야 할 시신이나 나무 뿐리와 벌레, 습기의 침해로 심하게 훼손되어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 깨끗하고 편안하게 모시는 장례법 조상을 멀리 떨어진 산에 모셔 거친 자연환경과 천자연변 속에 두고 두고 고통받게 하는 것보다 화장장을 하여 남골당에 봉안하면 언제나 깨끗하고 편안하게 모실 수 있습니다.

- 문빈정사



무등산 문빈정사 남골당 예약 및 봉안문의 062) 228-0108, 010-5103-4004, 010-7179-0108

광신대학교 한국가족치유상담교육원

500-710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 소로 36 교학처 (062)605-1112, 1063